

“장기적 투자 통해 기업·기술 가치 높였다”

■ 기술제휴사례 오스코텍-제일제당

IMF 환란 속에서 일부 선두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과 함께 불어닥친 벤처열풍이 최근 잇따라 터진 비리 사건과 벤처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그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이다.

IT와 더불어 벤처기업을 선도했던 BT분야도 그 역풍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연구 개발에만 주력했던 기존의 업계에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응용한 고부가가치의 자사 제품 출시와 함께 대기업과의 업무/기술 제휴를 통해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주)오스코텍 (대표 김정근)은 R&D 중심의 뼈 전문 생명공학기업으로서 골다공증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 뼈 관련 유전체 사업, 뼈 이식재료를 포함한 생체재료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오랜 연구개발의 성과로 수년 전부터 치과용 뼈 이식재와 뼈 연구관련 바이오제품 등을 제조하여 국내외 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와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최근 공동개발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특수영양식품인 “오스테온”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10년간 지원하는 21세기 Frontier 연구개발사업 중 “골다공증 신약 후보물질 개발” 분야에서 당당하게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 회사는 지난 8년간 1,400여종의 식물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신물질 탐색과정 중 수종의 유효물질을 찾아냈다. 이 중 두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는 2003년 말경 외국의 CRO를 통하여 전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중 골 소실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 식물 성분인 “BFI”란 물질은 4주간의 전임상 실험 결과 경골과 척추에서 골밀도의 감소를 현저히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FI가 포함된 제품인 “오스테온”의 임상시험에서 복용 후 3개월부터 골밀도 증가와 생화학적 지표에서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천연물의 효능은 지난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골대사

학회(ASBMR)에 보고가 되었으며, 이 물질을 주원료로 한 오스테온은 칼슘보충 특수영양식품으로서 국내 최초로 지난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품질인증(GH) 마크를 받았다.

(주)오스코텍은 식품제조경력, 폭넓은 유통망,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여러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업체를 모색하였으며, 식품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제품, 물류, 유통 면에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CJ와 전략적 제휴를 하기에 이르렀다.

당사의 전문 연구활동인 뼈 연구와 관련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CJ의 폭넓은 유통망, 브랜드 인지도가 결합하여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골 소실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 식물 성분인 “BFI”를 제공, CJ는 “오스테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전담하기로 하였으며, (주)오스코텍은 CJ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각 실험자료 및 연구 data를 back-up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제휴를 통해 CJ로서는 향후 골다공증 치료제 등 고부가 신약개발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당사로서는 상품화, 마케팅 등에 따르는 많은 인력과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존의 연구개발 부분에 더욱 더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제휴는 다른 업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또 진행중이다. 이른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 단기 매출에 연연하지 않는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등을 통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휴일정

- 2001년 11월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신물질 BFI 개발
- 2002년 4월 : 오스코텍 - CJ 원료 공급을 위한 MOU 체결
- 2002년 4월 : CJ와 골다공증 치료 효능이 있는 원료공급 계약 체결
- 2002년 8월 : 오스코텍 - CJ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개발 조인식
- 2002년 11월 : 뼈건강 특수영양식품 “오스테온” 출시